세명컴퓨터고등학교 졸업생 강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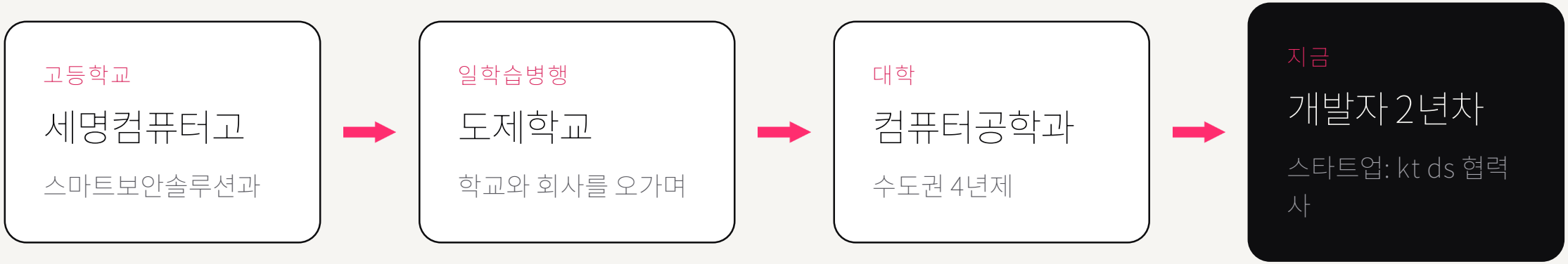
선택은 여러분 몫

[장진홍] · 스마트보안솔루션과 졸업 · 도제학교 출신 · 2년차 개발자

오늘 제 말,
이해 안 되셔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최대한 늦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유는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왔습니다



보안과로 시작해서 지금은 개발자. 전공이 진로를 전부 정하진 않더라고요.

01

기회는 예쁘게 오지 않는다

기회는 맞춤형으로 오지 않는다.
대부분 이렇게 온다.

지저분하고

치사하고

내가 방심할 때
스쳐 지나간다

제 이야기 ①

“ 솔직히 대기업 연봉 받고 싶었어요.
근데 스타트업 신입 초봉, 진짜 짜더라고요.”

조건

연봉, 복지
전부 입맛에 안 맞았다

상황

중견기업 최종면접 탈락 직후,
멘탈이 갈린 상태

고민

그렇다고 지금 내가
대기업에 갈 수 있나?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체계가 없다는 건,
내가 체계를 세울 수 있다는 뜻.

일단, 기웃거렸습니다

01 기획에 기웃	처음엔 “나댄다”는 말 → 나중엔 “개발자 입장에서 이거 가능해?”라는 질문을 받게 됨
02 고객 반응에 기웃	“제가 만든 거 반응 어떻게 볼 수 있어요?” → 고객사 정기회의에 따라가 선플·악플을 직접 들음
03 코어 업무가 옴	“이건 신입한테 시키기엔 너무 큰 건데, 너한테 준다”
04 내 말에 힘이 생김	연봉협상 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마음에 안 든 티만 내면 알아서 더 올려줌

사실 지금도 썩 마음에 들진 않아요. 하지만, 저는 이걸 해냈습니다.

01

잡는다

방심하지 말고 알아본다

02

가공한다

내 깔에 맞게 다듬는다

03

소화한다

결국 내 것으로 만든다

당장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식대로 소화하는 것,
그게 능력입니다.

지금 당장 해볼 것 ①

학교에도 못생긴 기회는 널려 있어요

아무도 안 하려는 조별과제 발표자	→ 내가 잡는다. 면접에서 쓸 “ 제가 발표 맡았던 프로젝트는요” 한 줄이 생긴다
억지로 하는 수행평가 · 실습 과제	→ 그냥 내고 끝내지 말고 깃허브나 노션에 올려 두기. 3학년 때 포트폴리오가 이미 쌓여 있다
학교에서 짜증 나는 불편함 급식표, 시간표, 수행 마감일	→ 불평 말고 직접 해결해 보기.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

02

쪽팔림을 견뎌라

배움은
우아하지 않습니다.

학교와 사회가 다르다는 말, 결국 이거라고 생각해요.

학교 vs 사회

	학교	사회
시간표	정해져 있다	없다. 업무를 받으면 내가 알아서 과목을 개설해야 한다
가르치는 사람	전문가가 들어와 알려준다	누가 알려줄 수 있는지 알아서 찾아야 한다. 알려주고 싶게끔 내가 잘해야 한다
시험 범위	범위 · 유형 · 밑줄까지 알려준다	아무것도 안 알려준다. 그게 시험 범위였는지조차 모르고 넘어가기도 한다
시험 날짜	정해진 날	불시에
결과	만회할 수 있는 다음 시험이 있다	점수가 꼬리표가 되고, 재시험은 없다

제 이야기 ②

“ 이 문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이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상 못 한 질문에 어버버하다, 제대로 답도 못 하고 끝났어요.

제일 무섭고 쪽팔렸던 건, ‘네가 한 건데 네가 몰라?’ 하는 눈초리를 견디는 거였어요.

그 쪽팔림이 저를 가르쳤어요

쪽팔림

내가 한 건데,
설명을 못 했다

견딤

도망 안 가고 자리로 돌아와
끝까지 파악해서 보고했다

배움

내가 한 일은
항상 정리해 두는 습관

그날 쪽팔림을 피했다면, 이 습관도 없었을 거예요.
쪽팔림을 견뎌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시험이 있는 여기서
마음껏 쪽팔려 보세요.

수행평가 발표 Q&A, 조별과제, 모의면접. 여러분의 회의실은 여기 있어요.

지금 당장 해볼 것 ②

쪽팔림, 미리 연습할 수 있어요

질문할 때 문장 하나만 바꾸기	“모르겠어요” 대신 “여기까진 알겠는데, 여기부터 모르겠어요.” 모르는 게 덜 쪽팔려진다
내가 낸 과제 30초로 설명해 보기	제출하고 친구한테 말로 설명해 보기. 막히는 데가 내가 모르는 데다
떨어질 것 같은 데에 일부러 나가 보기	교내 대회, 모의면접, 공모전. 여기서 망하면 재시험이 있다

처음에 한 말, 기억나세요?

최대한 늦게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했죠.

그걸 이해한다는 건,
이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어차피 사회에 나가면 어떻게든 배우게 됩니다.
만일 배우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사회에서는 '빌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지금 당장은 안 배웠으면 좋겠다고 한 거예요.

하지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어차피 배워야 할 거라면,
하루라도 빨리, 조금이라도 덜 상처받고
더 예쁘게 배우는 게 낫지 않을까요?

미래의 나를 위해서.. 나의 말과 태도를 미리 다듬어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에 대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질문 받습니다.